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미리 광고한 것처럼 전도대상자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은 12월 둘째 주일에 가집니다.
4. 2017년 하반기 세례식이 11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주몽, 신위형, 황제(이상 3명)
5.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 담당은 김환염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최순애 집사님입니다.
6. 강북시찰회 목사부부수련회가 11월 6일(월)-7일(화)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있습니다. 담임목사님 참석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예배기도(오전)		오승현 집사	김환염 집사	박성대 집사	신태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신경미 권사	최순애 집사	김화현 집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오효근 집사 조선경 집사 금재구 집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11/4)	주사랑목장(11/11)	에덴목장(11/18)	갈렙목장(11/25)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수능고사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오영은, 허성경)
5. 새로운 향촌직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 위해서
6.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양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오승현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날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
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편 3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묵상기도	다같이
찬송	다같이
기도	신경미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다같이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5:41-44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2)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예 4:1-3 '기도의 비밀'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54:1-7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소서'(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가을이 간다’

가을이 간다. 애써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을까. 하여 유수 같은 세월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 10월의 끝자락에 오랜 만에 정겨운 지인의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했다. 오랜 만에 만나서 그런지 반가움 한 켠에 서먹함도 드는 것을 억지웃음으로 넘겨본다. 시커먼 먹물 같은 차가운 어둠이 깃들기 전, 지인의 아이들과 교회 뒷밭주변을 함께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 없는 느린 걸음으로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다. 커켜이 쌓여 가는 낙엽 무더기를 보면서 언제 치울까를 생각하는 나와는 달리, 아이들의 느낌은 다른가 보다. 형제가 묻고 답한다. “형, 이 낙엽 이름은 뭐야?” “응, 그건... 그냥 낙엽이야!” 동생의 손에 쥔 낙엽의 이름을 몰라 애들러 대답하는 형의 난처한 표정이 우습다. “에이, 이름만 알았어도 내가 가져가서 두고두고 볼 테데.”

그런데 동생의 “에이, 이름만 알았어도”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다. 비단 아이 눈에만 비치는 사물에 대한 인식일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세상살이가 되지 않을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존재에 대한 관심과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김춘수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했다.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던 무관심을 ‘꽃’으로 전환시키는 관심에 대한 배려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비로소 나와 타자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시간 속에는 텅 빈 시간이란 없다. 단지 사람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쪼개어 자기 입맛대로 쓰기에 타인에 대한 관심의 배려란 없다. 단지 익명성 속에 무의미한 관계만이 지속될 뿐이다. “에이 이름만 알았어도” 천진한 아이의 말이지만 새겨들어야겠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삶의 자리마다 쌓여 가는 술한 인연들을 본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서 진심을 담아 불러보아. 부르는 그 순간, ‘나’와 ‘네’가 하나가 되는 친밀함이 형성될 것이다.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서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사 43:1). 이 계절이 다가기 전에 사랑해야 할 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아. 사랑 안에 하나됨의 비결을 얻기에 부르지 않을 재간이 없지 않은가.

Written by 허영진